

## I. 최근 달러/원 환율 급등 배경

- 최근 달러/원 환율은 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의 되돌림,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, 달러 대비 주요 통화 약세 영향 등을 반영하며 1,340원대로 급등
  - (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의 되돌림) 12월 FOMC에서의 도비시한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Fed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유입되며 '23년 말 달러/원 환율은 1,280원대로 급락. 그러나 이후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를 드러내며 신중한 스탠스를 강조한 영향으로 시장 내 조기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빠르게 되돌려진 데 따른 미 국채수익률 상승과 글로벌 달러 강세 반영하며 환율 급등
  - (지정학적 리스크) 이스라엘-하마스 분쟁의 확산 우려와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등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선거 이후 미-중 긴장 더해지며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가 가중 특히,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가 높아지며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이 부각됨에 따라 원화의 약세 압력이 더욱 확대된 모습
  - (달러 외 주요 통화의 약세) 연준 조기 금리인하 전망 후퇴 영향 속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 우려를 반영한 유로화 약세, 일본 노토반도 지진 발생 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지연될 가능성으로 인한 엔화 약세,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위안화 약세 영향 등 주요 통화 약세는 달러의 추가 강세 압력으로 작용

## II. 달러/원 환율 단기 전망

- 지난 12월 FOMC에서의 파월의장의 비둘기적 시사가 시장에 피벗 기대감을 높였으나, 여전히 이에 반하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언급이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었음은 일부 예측 가능했던 상황
  - 연준 통화 정책 일관성의 관찰은 1월 FOMC 결정이 중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, 이 시점 전까지 연준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
- 상기 연준 정책 불확실성 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요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특히, 남북간 갈등 첨예화 요인은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신인도 저하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을 통해 단기적으로 자본 유출 강화를 이어가게 할 것으로 보임. 여기에 유로화와 중국 경제 둔화 요인 같은 경우, 단기적 해소 요인이 아닌 상황에서 양 통화 약세 영향도 원화 환율 상방 압력 요인으로 지속 관찰해 할 필요가 있음
- 최근 대내외 요인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한번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주요 요인들의 해소 시점을 평가 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변동성을 반영하며 원화 환율도 다소 상방 압력이 높을 전망 속에 1,320~1,350원을 주 레인지로 등락 할 전망
- 다만, 1,350원 이상에서 국내 물가 상황 등을 고려 시, 외환당국이 상당히 부담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는 가격대라는 점에서 1월 중 1,350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상단이 될 것으로 전망
- 여기에 1월 FOMC의 결과가 12월 연준의장의 기조와 일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은 이후, 원화환율이 1,300원대 초반으로 되돌림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